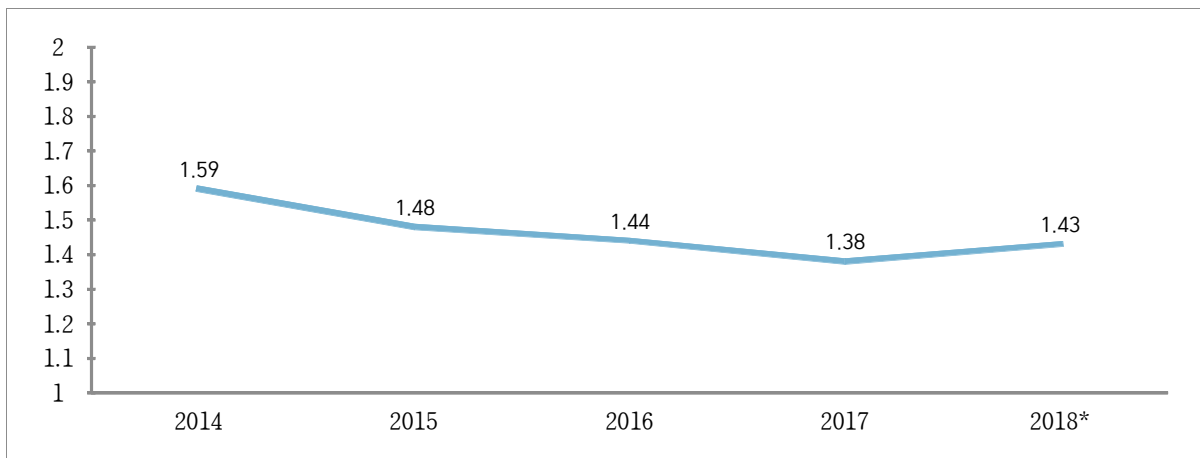


인도네시아 섬유·봉제 산업

1. 인도네시아 섬유·봉제 산업 개요

□ 180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섬유 및 봉제 시장

[그래프 1] 인도네시아 섬유·봉제 산업 GDP 비중 (단위: %)



(자료원: 인도네시아 통계청(BPS))

*2018년은 2분기 통계치

- 인도네시아는 세계 10대 섬유 제조 국가로, 섬유 및 봉제 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 중 하나이며 인도네시아 노동 시장을 이끄는 주요 산업임.
- 인도네시아 섬유·봉제 산업은 2018년 2분기 기준 GDP의 약 1.4%정도를

차지하고 있음.

- 인도네시아섬유협회(API)에 따르면 2018년 섬유산업 매출액(봉제 산업 제외)은 180억 달러로 예상되며, 2021년까지 매년 8.4%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인도네시아 섬유 및 봉제 산업 분석

○ (강점) 거대한 내수시장과 소비자 구매력 상승 및 풍부한 노동인구

-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6천만 명으로 세계 4위 규모이며, 2030년까지 2억9천5백만 명을 기록할 전망으로 내수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.
- 또한,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자 구매력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인구의 절반가량이 24세 이하로 패션과 유행에 민감해 패션 지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섬유봉제 시장의 매력도가 높음.
-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의 공식 고용 인구는 약 150만 명 이상이나, 직·간접적 고용 인구는 300만 명 정도로 집계되었음.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까지 311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 하고 있음.

○ (강점) 수직적 통합체계와 세계 4위 섬유 생산능력

- 소재부터 봉제까지 생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수직적인 통합 생산체제로 원료에서 완제품까지의 품질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음.
- 5,500개 이상의 섬유 및 의류 제조업체가 있으며, 관련 기계 및 설비

를 아시아 최대 규모로 갖추고 있어 세계 섬유 생산능력 4위를 점하고 있음.

○ (약점) 높은 비율의 원자재 수입 의존도

- 인도네시아 역시 면 생산 국가이지만, 공급량 부족과 제조업자들이 미국, 호주, 인도의 수입산 면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면섬유 수요량의 99.2%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
- 또한 방적사, 실크, 직물의 80%도 수입되고 있어 환율변동 위험에 취약함.

○ (약점) 생산설비 노후화와 물류 인프라의 미비

- 낙후된 기계 및 설비 역시 인도네시아 섬유 및 봉제 산업의 방해요인으로 평가됨.
- 열악한 물류 인프라 수준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이 원가의 약 15%를 차지해 가격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으며, 자동화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통관 지연이 잦은 편임.

○ (약점) 복잡한 투자 승인 절차

- 투자승인을 완료하는데 평균 151일이 소요되며 12가지 정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당히 많은 양의 비용이 요구됨. ※절차 간소화를 위해 OSS System (온라인인허가시스템)을 도입하였으나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.
- 말레이시아(30일), 태국(33일), 중국(40일), 필리핀(50일), 베트남(56일)에 비해 투자 승인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 됨.

○ (약점)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,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재

- 인도네시아의 주요 섬유봉제 수출시장인 미국, 유럽과 맺은 FTA가 없어, 인도네시아 섬유제품에 약 12.5%에서 16%정도의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 되고 있어, 베트남 등 과 같은 경쟁국가와의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입지에 위치해 있음.

○ (기회)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미·중 무역 분쟁 반사이익

- 세계 섬유 시장의 35%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은 Post-China로 불리는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 이동 및 가격경쟁력 등 수출 확대 기회를 줄 것으로 전망됨.
- 또한, 미중무역 전쟁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중국대비 경쟁력이 상승함.

○ (기회) 미국의 TPP 탈퇴

-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(TPP) 탈퇴에 따라 베트남 등 다른 섬유 수출국과 같은 가격 기준으로 경쟁이 가능해져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함.

○ (위협) 베트남과의 경쟁구도

- 베트남은 2017년 기준 전 세계 섬유 수출시장에서 인도네시아(1.56%)보다 높은 3.62%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, GDP 비중 또한 인도네시아(1.21%)보다 높아 15% 이상 기여 하고 있음.

- 인도네시아보다 긴 노동시간과 업무 효율성과 유럽과의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베트남의 입지가 유리해지고 있음.

○ (위협) 루피아의 가치하락

- 달러대 루피아의 평가절하로 인해 방적사, 직물, 면과 같은 섬유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하는 현지 섬유 기업들의 수입비용이 증가해 재정적 타격이 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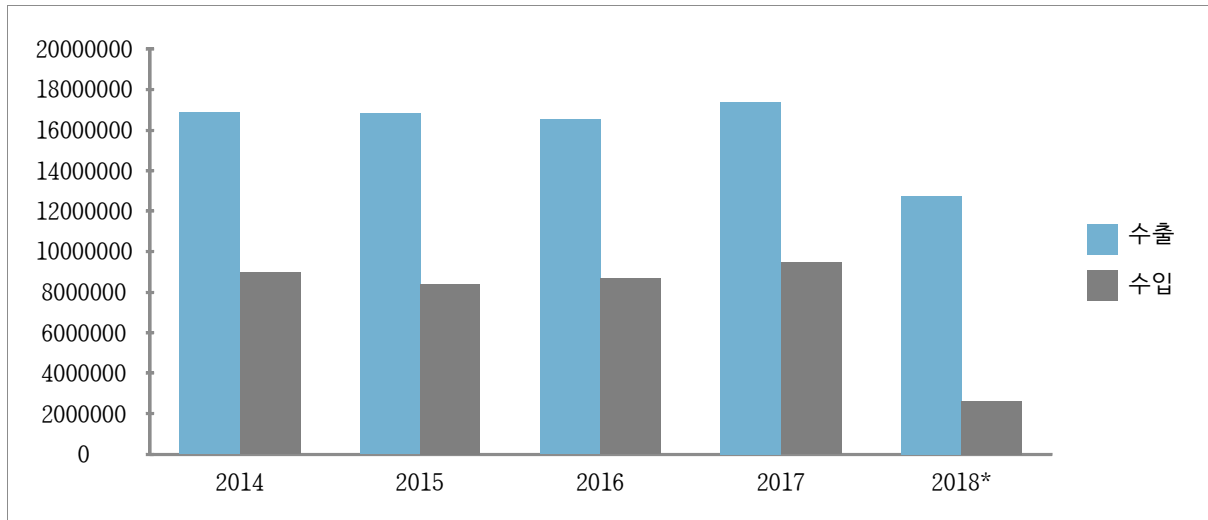
○ (위협) 최저임금 상승과 전기료 및 가스가격상승

- 자카르타기준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8.03% 인상한 394만 972 루피아(약 270달러)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, 다른 지역의 최저임금도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 노동집약적 업종인 섬유 및 봉제 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음.
- 또한, 섬유 생산비용의 24-30%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료 및 가스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 재정적 타격이 있음.

2. 인도네시아 섬유·봉제 교역 및 투자 현황

□ 인도네시아 섬유·봉제 수출입 동향

[그래프 2] 인도네시아 섬유·봉제 교역 동향 (단위: USD 천달러, 기준: HS Code 50-65)



[표 1] 인도네시아 섬유·봉제 교역 동향 (단위: USD 천달러, 기준: HS Code 50-65)

구분	2014	2015	2016	2017	2018*
수출 (증감률)	16,882,848 (△1.87%)	16,809,324 (▽0.43%)	16,511,438 (▽1.77%)	17,389,988 (△5.32%)	12,729,168 (△7.27%)
수입 (증감률)	8,963,380 (△0.02%)	8,382,487 (▽6.48%)	8,648,181 (△3.17%)	9,444,908 (△9.21%)	2,607,926 (△17.99%)

(자료원: 한국무역협회, 인도네시아 통계청(BPS))

*2018년은 수출은 1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치, 2018년 수입은 1월부터 3월까지의 통계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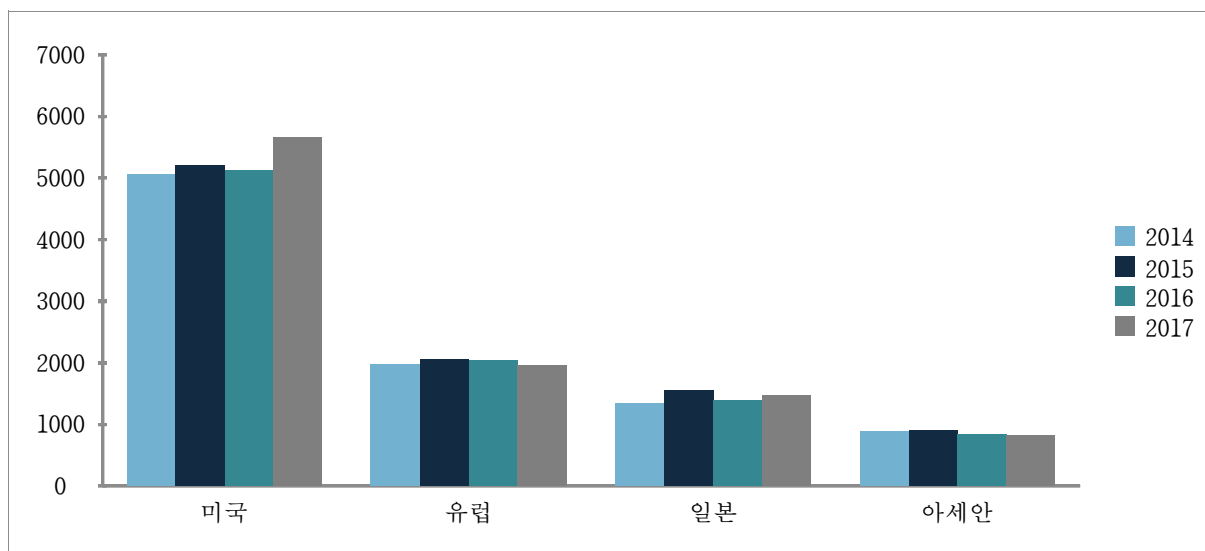
-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인도네시아 섬유 및 봉제 산업의 수출규모는 127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.3% 증가했음.
- 인도네시아 통계청(BPS)에 의하면 2018년 8월 기준 섬유부문 수출액은 전체 인도네시아 수출(1201억달러)의 약 10.6%를 차지하고 있음.

-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018~2019년의 인도네시아 섬유·섬유제품의 수출액을 연 11% 증가를 목표로 하며, 2030년까지 섬유 수출 75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는 전 세계 섬유 수출액의 5%를 차지하는 규모임.

- 섬유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노동 집약형의 섬유 메이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나 쾌적한 투자환경의 창출을 강화할 방침임.

□ 인도네시아 섬유제품 주요 수출 국가

[그래프 3] 인도네시아 섬유제품 주요 수출 국가 (단위: USD 백만달러)



(자료원: 인도네시아섬유협회, 인도네시아통계청, Comtrade)

- 인도네시아 섬유제품 대상 수출국은 대략 130개국 정도이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, 유럽, 일본, 아세안 국가로 전체 수출량의 약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.

□ 인도네시아 섬유·봉제 산업 투자(DDI·FDI) 동향

[표 2] 인도네시아 섬유·봉제 산업 투자 동향 (단위: DDI- RP Billion, FDI- US Million)

투자	구분	2015	2016	2017	2018*
DDI	금액 (RP B)	2,730	3,279	8,059	3,479
	건수	198	305	360	349
FDI	금액 (US M)	595.01	465.7	741.1	422.87
	건수	922	1,165	1,134	848

(자료원: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(BKPM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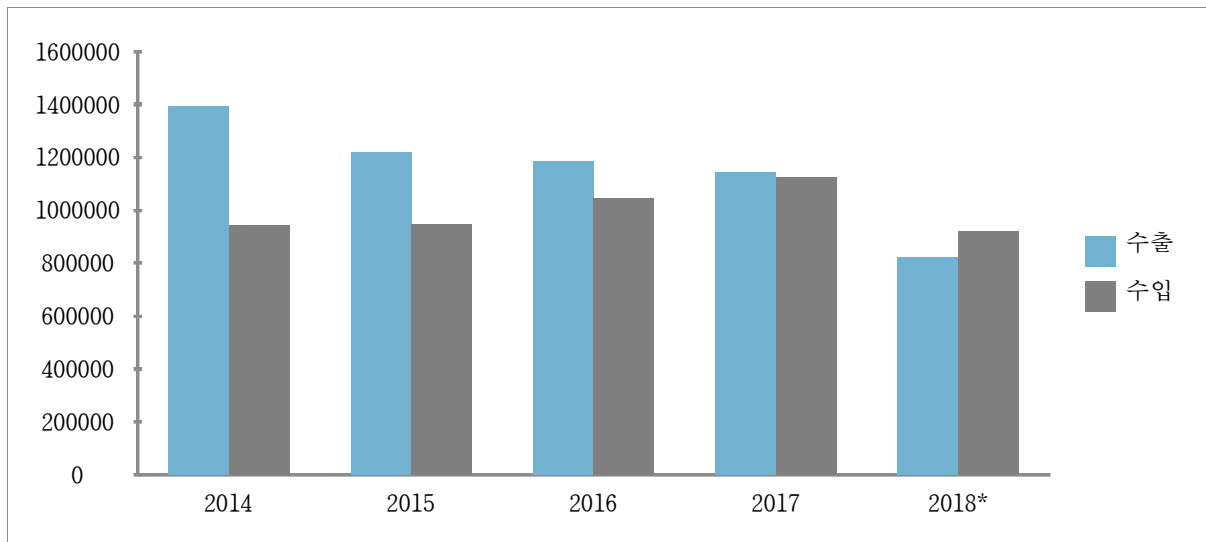
*2018년 투자금액은 1월부터 9월까지의 통계치

- 2018년 3분기 누적 인도네시아 섬유·봉제 산업 투자금액(DDI+FDI)은 약 6억6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.9% 감소하였음.
- 2018년 3분기 기준 섬유·봉제 산업 대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(FDI)금액은 약 4억2천만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금액의 약 2%를 차지하고 있음.
- 섬유·봉제 산업 내국인투자(DDI)는 약 3조5천억루피아로 전체 내국인 투자금액의 1.4% 차지하였음.

3.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현황

□ 한국 대 인도네시아 섬유·봉제 교역 동향

[그래프 4] 한국 대인니 섬유·봉제 교역 동향 (단위: USD 천달러, 기준: HS Code 50-65)



[표 3] 한국 대인니 섬유·봉제 교역 동향 (단위: USD 천달러, 기준: HS Code 50-65)

구분	2014	2015	2016	2017	2018*
수출 (증감률)	1,393,178 (△0.89%)	1,217,847 (▽12.58%)	1,182,293 (▽2.92%)	1,143,818 (▽3.25%)	821,808 (▽3.95%)
수입 (증감률)	940,614 (△3.10%)	947,311 (△0.71%)	1,045,389 (△10.35%)	1,125,275 (△7.64%)	919,417 (△7.14%)

(자료원: 한국무역협회)

*2018년은 수출은 1월부터 9월까지의 통계치

○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섬유 수출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수입은 증가하고 있음.

- 2018년 3분기 기준 대인니 수출은 821,808천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.95% 감소했으며, 대인니 수입은 919,417천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.14% 증가하였음.

□ 한국 대 인도네시아 섬유·봉제 산업 외국인투자 동향

[표 4] 한국 대 인도네시아 섬유·봉제 외국인투자 동향 (단위: 건, 개, USD 천달러)

구분	투자건수	신규법인수	신고금액	투자금액
2014	61	12	152,143	97,997
2015	47	9	87,902	114,537
2016	47	4	124,851	112,952
2017	49	9	114,568	101,343
2018*	35	5	83,977	54,288

(자료원: 한국수출입은행)

*2018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통계치

- 2018년 6월 기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섬유·봉제 투자금액은 5,428만달러(약 610억원)로 전년 동기 대비 43.4% 증가하였으며, 전체 대인니 투자금액 중 27.13%에 달함.

4. 인도네시아 섬유봉제 진출 한국기업

□ 인도네시아 섬유봉제 시장 진출 한국기업

-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섬유봉제 기업은 2015년 기준 450개사로 산정되었으나, 최근 현지 투자 증가와 미등록 업체를 고려하면 더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추정됨.
 - 대표적으로 한세실업, 세아상역, 신원, 효성, 한솔섬유, 노브랜드, 신성, 화승인도네시아, Dada 등 중소·중견기업이 진출해 있음.
- 현지 진출 국내기업은 인도네시아 영토 내의 보세 구역에 진출한 경우가 많으며, 인도네시아에서 생산·가공해 인근 아세안국가, 미국,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.
- 재인도네시아봉제협의회(KOGA)에 의하면,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들은 약 400,000명의 현지인을 고용해 인도네시아의 고용창출에 기여했음.
 - 이밖에도 우리 기업은 인도네시아 섬유 수출에 기여도가 높으며, 외환보유고 증대 등 인도네시아 섬유 및 봉제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.

□ 한세실업 (PT Hansae Indonesia)

[그림 1] 한세실업 인도네시아 법인 및 공장



(자료원: 한세실업)

- 한세실업은 2005년 인도네시아에 제1법인을 설립하였고, 이듬해인 2006년 제2법인을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였음.
- 제1법인은 인도네시아 까라왕에 위치해 대형마트와 같은 큰 규모의 바이어를 상대하고 있으며, 제2법인은 우따마에 위치해 있으며 패션 업계 쪽 바이어를 대상으로 함.
- 공장은 총 8개를 보유 하고 있으며, 8,000여 명 정도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음.
- 우따마 생산 공장은 니트 공정 40개 라인과 함께 우븐 공정 12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드레스 셔츠 등의 우븐(Woven)이 주력 생산 제품.
- 한세실업의 전체 생산량 중 30%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 모두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, 3억 달러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□ 세아상역 (PT Eins / PT Starpia I, II / PT Win Textile)

[그림 2] 세아상역 인도네시아 법인 및 공장



(자료원: 세아상역)

- 세아상역은 2006년 인도네시아 푸르와카르타에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및 진출 하였으며, 1만 명 이상의 현지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.
- 2억달러를 투자해 업계 최초로 원단 생산 시설을 건설하해 원단 수입과 외주 없이 편직-염색-자수-나염-봉제가 가능한 수직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해 자체 조달하고 있음.
 - 135개 니트 라인, 12개 우븐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, 일관 생산 시스템을 통해 매년 6억달러 이상의 신규 매출이 전망됨.
- 인도네시아의 수출 규모 중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출이 약 4억달러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연간 의류수출의 4%를 점유하는 수준.

□ 신원 (PT Shinwon Indonesia)

[그림 2] 신원 인도네시아 법인 및 공장



(자료원: 신원)

- 신원은 니트와 생산 CAPA 확대 및 신규 CO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인도네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음.
- 천만달러를 투자해 인도네시아 현지 니트 공장도 인수하였으며, 생산 인력은 2천여 명으로 한달에 50만장의 니트를 생산함.
- 프린트와 자수 등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봉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바이어의 다양한 오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, 양질의 외주 협력업체를 활용해 생산 CAPA를 대폭 확대하고 있음.
- W/mart, K-mart&Sears, The Gap 등의 바이어로부터 품질 및 생산성에서 우수한 공장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,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미국과 유럽 등으로 수출해 연간 3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음.

[참고] 인도네시아 섬유관련 전시회

□ Indo-Intetex

[그림 6] Indo-Intertex 전시회



(자료원: Indointertex)

- (장소) Jakart International Expo, Indonesia
- (일시) 2019년 3월 28-30일
- (개요) Indo-Intertex 전시회는 동남아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국제 섬유, 의류, 가공기계 및 악세사리 전시회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19년에 제 17회를 맞이함. 원단이나 원사뿐 아니라 섬유관련 가공 기계와 장비 및 최신기술 전시가 가능함.
 - 23개국에서 약 900개사가 참가하는 대형 국제 전시회로 한국 업체는 약 10개 정도 참여하고 있음.
 - 일대일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효율적이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경험할 수 있음.

6. 결론 및 시사점

□ 섬유봉제: 인도네시아의 유망 및 주력 산업

-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(KADIN)이 발표한 ‘2030년 비전 및 산업발전 로드맵’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산업은 섬유, 전자, 자동차, 수송 산업부문임.
- 특히 섬유산업은 석유와 가스부문을 제외하고 전자산업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수출부문으로, 2018년 3분기 기준 12,729,168천달러로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해 인도네시아의 외환 획득고의 결정적인 요소임.
- 대상 수출국은 약 130개국 정도이며, 주요 시장은 미국, 유럽, 그 밖의 인근 아세안국가들임.
-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유산업의 수출 산업 증진을 위해 선진 섬유기술의 개발, 노후설비 개선, 관련 전문 인력 양성, 우호적인 사업 환경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정책과 장려프로그램을 발표해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.

□ 섬유봉제: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이 필요

- 인도네시아의 탄탄한 내수 시장이 경제 성장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, 내수 위주의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음.
- 중국이나 베트남 등으로부터 저가의 수입품과 밀수품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공급과잉 상태가 되고 있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수출에 주력해야 함.

- 따라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
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출 산
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.
- 마찬가지로 섬유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
주요 시장인 미국,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함.
 - 현재 미국과 유럽은 인도네시아 섬유제품에 약 12.5%에서 16%정도의
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, 베트남(Vietnam-EU FTA 2019년 발효
예정) 등 경쟁국가와의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입지에 위치해 있음.
 - 인도네시아와 유럽은 양국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위해
Indonesia-EU CEPA를 논의 중에 있으며, 체결이 될 경우에 인도네
시아의 섬유산업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.

□ 우리 진출 기업의 시사점

- 인도네시아 섬유봉제 산업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종합적으로 우수한 수
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국 기업 대비 모든 경쟁요소
에서 우위를 확보 하고 있음.
 - 특히, 다양한 유통망 확보와 판매 및 기술 경쟁력 부문에서 강점을
보유하고 있음.
- 하지만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상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금인상 정
책 등에 대응이 필요함.
 -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2000년 16달러로 시작해 2010년 77달러로

상승하였으며,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매년 10%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.

- 2014년 17.44%를 시작으로 2015년에 12.1%, 2016년 11.5%, 2017년 8.25%, 2018년 8.71% 상승하였으며, **2019년 최저임금은 270달러로 결정**되어 인도네시아 진출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저렴한 인건비 혜택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음.
- 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제조업 기준 평균임금은 **인도네시아(170달러)**, 캄보디아(170달러), 베트남(214달러), 태국(388달러), 중국(775달러), 말레이시아(865달러)로 경쟁국가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, 계속되는 임금 상승으로 사업을 철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이 많음. 끝.